

2023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국제심포지엄  
翰林大学校 日本学研究所 国際シンポジウム



# 동아시아 문화권력의 대립과 길항 : 화해를 위한 모색

## 東アジアにおける文化権力の対立と拮抗 : 和解のための模索

9.15.[Fri.] - 9.16.[Sat.]

소노벨 비발디파크[SONO Belle 비발디파크]

Zoom Webinar

회의아이디(ミーティングID) : 474 265 5600

암호(パスワード) : 485359

주최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후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主催  翰林大学校 日本学研究所    後援  韓国教育部  韓国研究財団

## 9.15 동아시아 문화권력의 교차성과 역사적 잔향

09:40	접수	Zoom시스템 조정, 통역부스 조정, 발표준비·설정	사회 : 전성곤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0:00	개회 인사		서정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b>제1부   교착(交錯)하는 동아시아의 경계와 수맥</b>			
10:10	발표1	복수(複數)의 경계를 살아간다 - 재일 제주인의 생활세계로부터의 시론	이지치 노리코 (伊地知紀子, 오사카공립대학)
10:50	발표2	교차(交差)하는 수맥 - 이민진의 『파친코』 (2017)에서 김시종의 「헌시」 까지	사카사이 아키토 (逆井聡人, 도쿄대학)
11:30	중간토론	김웅기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2:10		중식·휴식	
<b>제2부   제국-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 구조화와 명암</b>			
14:30	발표3	폭력의 기억과 빙의하는 유산 - 나카무라 고교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식민지적 낯익음과 두려움’	호리이 가즈마 (堀井一摩, 니혼대학)
15:10	발표4	‘메이지의 밝음’과 전후 후기의 대중 내셔널리즘 - ‘시바 료타로의 시대’와 ‘쇼와의 어둠’의 후경화	후쿠마 요시아키 (福間良明, 리쓰메이칸대학)
15:50		휴식	
16:10	중간토론	강우원용 (가톨릭관동대학교)	
16:50	인사말		서정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9.16 포스트제국 시대 동아시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통합적 전망

09:40	접수	Zoom시스템 조정, 통역부스 조정, 발표준비·설정	사회 : 김웅기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0:00	인사말		서정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b>제3부   포스트제국 냉전하의 동아시아 : 화해와 희망</b>			
10:10	발표5	‘화해’를 위한 역사연구의 과제 - 위안부문제 해결 운동에서 생각한다	도노무라 마사루 (外村大, 도쿄대학)
10:50	발표6	바다 저편에 희망을 가지며 - 중층화되는 오키나와에서 교착하는 포스트제국과 냉전하 동아시아	장정제 (張政傑, 동우대학)
11:30	중간토론	송석원 (경희대학교)	
12:10		중식·휴식	
<b>제4부   동아시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모색</b>			
14:30	발표7	탈-다문화 탈-세속화 시대의 독일/유럽 사례를 통해 본 동아시아 사회통합의 과제	정진헌 (鄭填憲, 통일교육원)
15:10		휴식	
15:30	전체토론	발표자·토론자 전원 참가	사회 : 조수일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7:30	폐회 인사		서정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9.15 東アジアの文化権力の交差性と歴史的残響

09:40	受付	Zoom・通訳システム調整、発表準備・設定	司会: 全成坤 (翰林大学校日本学研究所)
10:00	開会の挨拶		徐禎完 (翰林大学校日本学研究所)
<b>第1部   交錯する東アジアの境界と水脈</b>			
10:10	発表1	複数の境界を生きる：在日済州人の生活世界からの試論	伊地知紀子 (大阪公立大学)
10:50	発表2	交差する水脈 —— Min Jin Lee, Pachinko(2017)から金時鐘「献詩」(2022)まで	逆井聡人 (東京大学)
11:30	コメンテーター	金雄基 (翰林大学校日本学研究所)	
12:10		休憩	
<b>第2部   帝国-ポスト帝国の文化権力、その構造化と明暗</b>			
14:30	発表3	暴力の記憶と憑依する遺産 —— 中村古峡と芥川龍之介における〈植民地的不気味なもの〉	堀井一摩 (日本大学)
15:10	発表4	「明治の明るさ」と戦後後期の大衆ナショナリズム —— 「司馬遼太郎の時代」と「昭和の暗さ」の後景化	福間良明 (立命館大学)
15:50		休憩	
16:10	コメンテーター	姜宇源庸 (カトリック関東大学校)	
16:50	挨拶		徐禎完 (翰林大学校日本学研究所)

## 9.16 ポスト帝国時代の東アジアの和解と協力のための統合的展望

09:40	受付	Zoom・通訳システム調整、発表準備・設定	司会: 金雄基 (翰林大学校日本学研究所)
10:00	挨拶		徐禎完 (翰林大学校日本学研究所)
<b>第3部   ポスト帝国の冷戦下の東アジア：和解と希望</b>			
10:10	発表5	「和解」のための歴史研究の課題 —— 慰安婦問題解決の運動から考える	外村大 (東京大学)
10:50	発表6	海の其方へ希望を持ちながら —— 重層化されるオキナワで交錯するポスト帝国と冷戦下の東アジア	張政傑 (東呉大学)
11:30	コメンテーター	宋錫源 (慶熙大学校)	
12:10		休憩	
<b>第4部   東アジアの和解と協力のための模索</b>			
14:30	発表7	脱・多文化、脱・世俗化時代のドイツ／ヨーロッパの 事例を通して見た東アジア社会統合の課題	鄭埴憲 (統一教育院)
15:10		休憩	
15:30	総合討論	発表者・コメンテーター・参加者	司会: 趙秀一 (翰林大学校日本学研究所)
17:30	閉会の挨拶		徐禎完 (翰林大学校日本学研究所)

## 초대의 글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는 2008년부터 9년 동안 <제국일본의 문화권력: 학지(學知)와 문화매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승계하고 발전시켜서 2017년부터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 기초학문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16년 동안 ‘문화권력’ 연구에 집중하는 본 연구소의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 아젠다는 제국 해체 이후 그 공간에 새로 건설된 동아시아의 각 국민국가에 제국일본의 문화권력이 어떻게 수용되고 거부되었는지, 또는 어떠한 변용을 거쳐서 잠재하고 어떠한 양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탈(Post)-식민지화, 탈-제국화를 통한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존, 협력을 모색하는 시도입니다. 나아가서 여기에는 이 ‘포스트’가 ‘탈’을 성취하였는지 또는 ‘후기(post) 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의 하나로 이번 2023년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동아시아의 연구자를 초빙해서 국제심포지엄 <동아시아 문화권력의 대립과 길항: 화해를 위한 모색> 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동아시아 문화권력의 교착성과 역사적 잔향’이라는 주제로 <제1부 교착하는 동아시아의 경계와 수맥> 에 두 개의 발표와 중간토론을 배치하고, <제2부 제국-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 구조화와 명암> 역시 두 개의 발표와 중간토론을 배치했습니다. 생활세계와 문학의 장에서 역사적 사실로서의 실태와 그에 관한 서술·기억 사이에 교차하고 교착하는 것의 내실과 거기에 개재하는 문화권력의 구조와 그것이 자아내는 명암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라는 아젠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과정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둘째 날일은 ‘포스트제국 시대 동아시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통합적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3부 포스트제국 냉전하의 동아시아: 화해와 희망> 에 두 개의 발표와 중간토론을 배치하고, 제4부에서는 독일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동아시아의 사회통합을 생각하는 발표를 듣고 ‘동아시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모색’이라는 주제로 이번 심포지엄 참여자의 의견과 생각과 고민을 공유하는 전체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해와 협력, 사회통합과 공존은 이뤄질 수 없는 낭만적인 꿈에 불과하다는 말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사유와 논의를 멈추는 순간 주체성과 공동성을 상실한 피지배의 삶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기록을 비롯한 다양한 텍스트에 담긴 역사의 아픔을 확인하고 상처를 위로하는 데 머물지 않고, 이를 뛰어넘어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존을 위한 길을 앎·지식, 매체·문화,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개척해 나가는 논의를 펼쳐보고자 합니다.

냉전체제의 붕괴를 거쳐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21세기에 많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단이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 라는 아젠다를 준비할 때 세계 곳곳에서는 그동안 은폐되어 있던 제국주의적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America First’를 외쳤으며, 중국은 ‘奮發有爲’를 천명하였고,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후, 홍콩과 미얀마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민중의 갈망이 좌절하고,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경제전쟁에서 보듯이 패권주의=제국주의적 욕망으로 팽배한 파도가 세차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인문학은, 특히 한국의 일본학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저희 아젠다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 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공사다망하신 줄 아오나, 부디 발걸음하시어 좋은 말씀과 조언으로 이번 국제심포지엄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장을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 서정완

## ご招待の挨拶

翰林大学校日本学研究所は2008年から9年間〈帝国日本の文化権力：学知と文化媒体〉研究を完結し、その成果を継承・発展させて2017年から〈ポスト帝国の文化権力と東アジア〉(韓国研究財団人文韓国プラス[HK+]事業、基礎学問分野)研究に取り組んでいます。延べ16年間「文化権力」研究に取り組む本研究所の〈ポスト帝国の文化権力と東アジア〉アジェンダは、帝国の解体後、その空間に新たに建設された東アジアの国民国家に帝国日本の文化権力がどのように受け入れられ拒否されたのか、あるいはどのような変容を経て潜在し、どのような様相にて再生産されているのか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脱(Post)・植民地化、脱・帝国化を通じた東アジアの和解と共存・協力を模索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さらにはこの「ポスト」が「脱」を成し遂げ得るのかあるいは「後期(post)帝国を脱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かの問題にも迫ることも含まれています。

その具体的実践の一つとして、この度、2023年9月15日から16日までの二日間にわたって東アジアの研究者をお招きして国際シンポジウム〈東アジアにおける文化権力の対立と拮抗：和解のための模索〉を開催する運びとなりました。

初日は、「東アジアの文化権力の交差性と歴史的残響」というテーマのもとで〈第一部 交差する東アジアの境界と水脈〉に二つの発表とコメンテーターによる中間討論を配置し、〈第二部 帝国-ポスト帝国の文化権力、その構造化と明暗〉にも二つの発表とコメンテーターによる中間討論を配置しました。生活世界と文学の場で歴史的事実としての実態とそれに関する叙述と記憶との間に交差し交錯するものの内実や、そこに介在する文化権力の構造とそれが紡ぎ出す明暗とは果たして何かについて議論することも〈ポスト帝国の文化権力と東アジア〉というアジェンダを遂行するにあたって必要な過程の一つと考えています。

二日目は、「ポスト帝国時代の東アジアの和解と協力のための統合的展望」というテーマを設定し、〈第三部 ポスト帝国の冷戦下の東アジア：和解と希望〉に二つの発表とコメンテーターによる中間討論を配置し、第四部ではドイツやヨーロッパの事例を取り上げて東アジアの社会統合を考える発表の後、「東アジアの和解と協力のための模索」というテーマのもとでシンポジウム参加者の意見・考え・苦悩を共有する総合討論を行なうこととなります。和解と協力、社会統合と共存は決して叶うことのない理想的な夢に過ぎないという意見もあると思います。しかし、この思惟と議論を諦める時、われわれは主体性と共同性を喪失した被支配者としての運命を受け入れなければならなくなるでしょう。歴史の記録をはじめとする様々なテキストに刻まれた歴史の痛みを確かめ、傷跡を癒すにとどまらず、それを越えて東アジアの和解と共存のための道を学知や文化媒体、日常生活の領域からの開拓を試みる議論を深めていければと思います。

冷戦体制の崩壊を経て21世紀を迎えながら私たちは多くの希望を語っては託しました。ところが残念ながら、本研究所が〈ポスト帝国の文化権力と東アジア〉なるアジェンダを検討していた当時の世界はその間隠蔽してきた帝国主義的欲望が強くうごめいていました。アメリカは「America First」を叫び、中国は「奮發有爲」を掲げ、日本は「戦争のできる国」を目指していました。その後、香港とミャンマーでの民主主義を要求する民衆の願望が挫折し、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や米中の経済戦争から見て取れるように覇権主義=帝国主義的欲望が怒濤となって押し寄せています。このような状況のなかで、人文学は、とりわけ韓国の日本学は何ができ、何をしなければならぬのかについて悩み続けることが本研究所の〈ポスト帝国の文化権力と東アジア〉というアジェンダであると言えます。

ご多忙のこととは存じますが、何卒ご臨席いただき貴重なご意見とコメントを以て今回の国際シンポジウムが相互の考えを共有する有益な場となるよう同行して頂ければ幸甚であります。

2023年9月

翰林大学校日本学研究所  
所長 徐禎完